

집합주거단지 거주자의 인지도에 따른 이미지 분석

The Analysis of Image by Cognitive Map of residents in apartment housing

경성대학교 이과대학 가정관리학과

부 교수 최 지 희

연구조교 강 혜 경

Dept. of Home Economics, Kyung Sung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Dgie Heui Choi

Research Assistant : Hye Kyung Kang

목 차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선행 연구

IV. 연구방법

V. 결과 및 해석

VI.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ach of us has personal and unique "Mental Images" of environment that are the results of a two-way process between an observer and his environment. By understanding of people's image on their physical settings through cognitive maps, we can learn how to represent perfectly their environment and which are more congruent with their design environment. In this context,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ident's image in apartment housing that are modern housing.

This paper is theoretically based on Appleyard's cognitive maps types, Lynch's the components of image, Harrison and Howard's image enhancing factors and Appleyard's image enhancing factors of buildings.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two-instruments were used. One was sketch mapping, that told of visual aspects of cognitive map. Another was verbal questionnaire, which was composed of nonvisual aspects of image components and image enhancing factors. For the methods of research analysis, Percentage, Frequency, and Chi-square test were u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as for the types of cognitive maps, the rate of sequential maps and spatial maps are nearly same. Secondly, as for the components of images, landmarks and

districts are significant elements in apartment housing, and edges, nodes and paths are rare element. Thirdly, with regard to image enhancing factors, landscaping is shown to be most effective at landmarks and districts. And finally, in examing the differences of images between various social groups, significant variables are years of living and housing size. Age and income are the next.

In this study of image, we can learn about manner in which individuals come to see, understand, and cope with the environment at a personal level. So, user-oriented approach is useful in environmental design, and particularly, it is useful in the apartment housing of the future life space.

I. 서론

오늘날의 가정학은 다(多)학제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경계학문(boundary discipline)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건축학과 인간학적 연구의 연계적 접근이 주거학의 기본적 성격이지만, 건축학 역시 사회과학자들과 끊임없는 교류를 하여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본 연구는 발달심리학자들의 공간인지 능력개념과 그 이미지 형성과정 추론이 도시계획(환경계획) 분야의 기초 자료가 될수 있다는 문제집에서 시작하였다.

사물을 만드는 인간(Homo Fabrer)이 창조한 최초의 건물인 주택은 물리적인 은신처 뿐만 아니라, 외부환경에 대한 공간의 공포(Horror Vacui)를 견디어 내는 심리적·실존체의 본질이며, 지역적인 문화정신적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 인간이 환경을 사용하고 체험하는 과정중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은 장소의 형성과 그것에 대한 인식이다. 여기서 장소란 '명확한 위치(situation)를 가지는 특정한 공간(space)'으로 정의되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의 의미가 아니라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해서 주위의 다른 환경보다 특이한 관심과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물리적 환경'을 가르킨다고 볼 수 있다(손세관, 1989: 30). 다시 말하면, 인간은 환경으로 부터 의미를 받아들여서 정보를 구하고 축적함으로써 환경을 평가하고 나름대로 이해하게 되며, 이러한 환경에 대한 개인의 평가와 이해의 결과로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환경-인간-이미지에 관한 연구는 1950년대 이전부터 지리학, 심리학, 건축학의 다방면의 분야에서 많은 관심이 있어왔고, 1960년 미국의 세 도시를 대상

으로 하여 도시 이미지에 관한 최초의 실험적 연구를 한 Kevin Lynch에 의하여 심상도(mental map)의 과학적 연구에 대한 적절한 연구방법과 환경인지(environmental cognition)에 관한 사고의 체계가 제공되면서 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Holahan, 1982: 50). "이미지의 조작을 통하여 환경의 질을 고양시킬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환경-이미지에 관한 연구가 서구에서는 동네, 지역사회, 도시, 국가 등의 다양한 규모에서 그리고 성인에서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에 비하여, 국내에서는 김현선(1983), 이진영·김용기(1984), 이진원(1984), 권태호(1987), 안순선(1987) 등의 서울 도심부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하여 소수의 조사연구가 행하여진 정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산업혁명 이후 공장노동자들의 집단적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비롯되어, 오늘날은 도시화와 함께 인간의 일차적인 생활공간으로서의 특정장소인 '주거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집합주거단지'에 대한 거주자들의 이미지 특성 및 공간인지 유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물리적 환경(집합주거단지)에 대하여 거주자들이 어떠한 이미지를 형성하는지의 의문에서 시작하여, 어떠한 물리적 환경의 요소가 이미지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또한 그러한 이미지를 갖도록 하는 고양인자(高揚因子)는 무엇이며, 그들의 인지도 유형은 어떠한가를 밝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집합주거단지에 대한 거주자들의 인지도 특성을 통한 공간인지 유형을 분석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물리적 환경을 설계할때 그 근거를 사용자인 인간의 '체험된 이미지'에 중점을

두는 사용자 지향적(user-oriented) 접근방식의 유용성에 기초한 환경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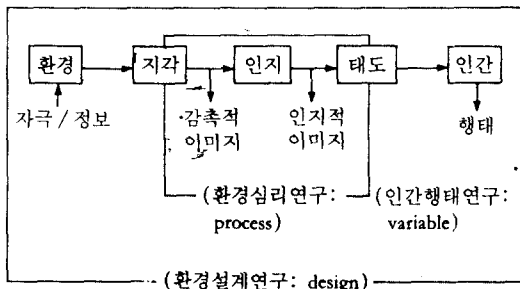
1. 환경인지의 과정

인간과 환경은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환경에 대한 개개인의 평가와 이해의 결과로서 이미지는 형성되며, 이러한 이미지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찾아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인지도이며, 이를 바탕으로 인간은 행동하게 된다. 환경인지의 과정은 사실상 명확한 구별없이 상호중복되어 총체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환경인지의 과정을 지각·인지·태도의 세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이는 우리가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며, 개념화하고, 기억하고, 평가하는지에 관한 경험적 측면의 차원에서 분리해서 논의함이 유리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대상을 사실 그대로 지각하지 않으며, 일단 감각기관을 통하여 받아들여서 자기가 가진 지식, 문화체계, 가치관 등과 결합시켜 최종적인 인지의 단계를 거쳐 나름대로 환경에 대한 결정(decision), 태도(attitude), 평가(evaluation)를 하게 된다. 이때, 환경지각은 인체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현존하는 환경에 대한 정보를 감지(sensation)하여 받아들이는 과정을 의미하고, 환경인지는 인간이 환경에 대하여 갖는 느낌, 정보; 이미지, 신념 등을 일컫는 것으로, 개인 또는 집단이 그들의 환경과 그 구성요소의 존재에 관한 정보와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그들이 환경에 대하여 의미, 중요성, 그리고 상징적 특징을 부여한다는 것을 뜻하며, 넓은

의미에서 모든 형태의 앎(knowing)의 과정을 말한다. 즉 감각(sensation), 지각(perception), 이미지(image), 기억(retention), 회상(recall), 추리(reasoning), 문제해결(problem solving), 판단(judgement) 그리고 평가(evaluation) 등을 포함한다.

이상에서 볼때, 환경의 인지과정은 정보의 수집, 저장, 조직, 재편성 그리고 추출 등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쳐 일반화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에게 환경에 대한 앎(knowing)을 갖게 하며, 우호적인(favorable) 또는 비우호적인(unfavorable) 감정 등으로 나타나는 평가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이미지는 질적으로 두가지 수준에서 구별될 수 있다(瀬尾文彰, 昭和 56 : 119). 첫째는 감촉적 이미지로서 이는 「개념이전의 미분화의 내용을 인식하기 위한 도구」로서 정의된다. 즉, 미지의 세계에 속하는 무엇, 미분화된 현실을 지각의 대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도구로서 예술가들의 예술 작품으로 구현되는 이미지이다. 둘째는 인지적 이미지로서 환경을 인식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이미지로 「마음에 그리는 대상」「용지(用知)의 길」「일련의 이미지 궤적(orbit)」「*이미지도(image map)」 등의 용어로 설명된다. 감촉적 이미지가 환경을 감촉하여 학습을 거치지 않고 즉시적으로 발생하는 지각상인 반면에, 인지적 이미지는 환경을 인식하여 학습의 결과로서 머리속에 남은 대상의 인식상(象)으로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후자의 이미지에 가깝다.

한편, 이러한 인지과정은 세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심리학적 기능을 행한다. 첫째, 공간적 문제의 해결(spatial problem solving)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일상의 것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며, 또한 그곳에 어떻게 갈 수 있는가를 말하여 준다라는 것이다. 둘째, 물리적 환경과 관련된 인간들 사이의 의사소통(communication)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개인적 독자성(personal identity)의 감각을 조직하는데 있어 체



<그림 1>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연구

* 1 일상적 생활행위를 통해서 인간유기체가 환경에 대하여 지니게 되는 일련의 이미지 궤적(figure)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싶다. 따라서 심상도(mental map)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자 한다.

계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인지도가 많은 공통의 요소를 포함할지라도, 각각의 인지도는 특정 개인이 세상에 대하여 형성한 유일하고 독특한 견해를 중요한 방법에서 반영하고 있다는 거다. 따라서 환경인지는 개인의 감정, 태도, 경험의 복잡한 배열에 의해서 개인이 공간 환경을 재구성하는 활동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2. 이미지와 인지도^{*2}

이미지는 인간이 환경에 대하여 가지는 총체적 표현이며, 마음의 그림이다. 또한 그것은 장소(place)에 대한 인간의 도식적(schematic)이고 간접적인 지식의 종합이다(Boulding, 1956).

Kevin Lynch(1960)는 길을 찾아내는 과정에서의 중요한 실마리는 환경의 이미지이며, 이는 개개인이 물리적 외계에 대하여 안고 있는 종합적인 심상을 뜻하며, 현재의 지각과 과거 경험의 양자로 부터 생겨난다고 하였다. 또한 Schulz(1971)는 5가지 공간 개념의 구별에서 인간의 실존은 의미 작용을 갖는 긴밀한 환경의 이미지, 즉 실존적 공간을 확립하는 데 달려 있음을 논증하려 하였다. 한편, 엽수원(1981)에 의하면 하나의 건축공간은 현실(實境)-지각-심상-정서의 과정을 거친다. 이때, 형성된 심상은 실지의 현상으로부터 사람의 감각을 거쳐 전환되어 마음속에 생기는 상(象)이며, 따라서 실제 현상과는 차이가 있다고 한다. 또한 그는 피상적 지칭의 물리적 공간척도는 3차원적이며, 생활공간은 4차원적이며, 심상은 사람의 마음속에 생기는 상(象)으로 5차원적인 것이라 하여, 인간의 인식과정과 이미지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인간의 지각에 대한 중재의 기능으로서

환경의 이미지는 행동(action)에 대한 사고를 끌어내기 위한 심상 환경(mental setting)의 역할에 덧붙여, 우리에게 시각적이고 공간적인 정보를 부호화, 구조화, 저장하는 것을 허용하며 우리가 보는것(seeing)에 의한 반응을 조정하고 규칙적이게 한다. 또한 우리의 개인적 경험에 대한 특별한 일면을 재인하고, 선택하고, 기록하고, 유지하도록 하여 명확한 지각의 현상에서 지속적인 사실(reality)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렇듯 환경이미지라는 것은 우리가 환경을 인식하고 행동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이미지이다. 이것은 심상도 과정(mental mapping process)의 결과로서 공간이미지(spatial image), 심상도(mental map), 인지도(cognitive map) 등과 같은 용어로 표현되고 있고, 이들 모두는 공간환경의 특성이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인지적 표현이다(Downs & Stea, 1973 : 79).

여기서 인지도(cognitive map)는 공간관계 및 환경의 특성에 대하여 사람들이 머릿속에 기억해 두는 이미지로서 그들의 태도를 찾아내기 위한 일종의 기법이며, 인식한 내용을 묘사할 수 있는 일련의 편리한 기호로서 심상지도화(mental mapping)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인지지도화(cognitive mapping)는 지도화과정(mapping process) 그 자체에 관련된 일련의 사회학적 변형으로 이루어진 과정이다. 따라서 인지도는 지리학적 환경의 일부분에 대한 개인의 조직된 표상(representation)으로서 환경을 상징하고 표현하며, 이 표상은 공간환경에 대한 선호와 그것의 간략화된 모델(simplified model)이라 볼 수 있다. 이에 특정 환경에의 개인적 표상은 객관적 환경에의 명확한 사본(replica)이 아니며, 실제 환경에 대한 개인적으로 맞추어진 변형(version)이다(Holahan, 1982 : 56).

Downs과 Stea(1973)는 공간환경의 명확한 상(picture)이 환경을 통해 획득된 감각운동 피드백에 의존한다고 하여 인지지도화의 과정에 있어서 행함에 의한 학습(learning by doing)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인지도가 환경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적극적인 활동과정(active process)임을 설명한 것이다.

*2 인지도(cognitive map)는 내적(internal) 이미지를 표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도로서 본 연구자는 스케치지도(sketch map)의 결과로 본다. 심상도(mental map)는 각 개인이 어떤 환경에 대하여 지니게 되는 내적 이미지 흐름으로서의 상(象)이다. 즉, 인간은 행동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환경에 대한 심상이미지(mental image) 또는 추상적 통찰력(abstract vision) 있는 행동계획을 위한 능력의 일부를 필요로 한다.

3. 접근방식에 따른 심상도(mental map)의 유형

공간행위자들이 지니고 있는 환경에 대한 인지된 이미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심상도는 아래와 같은 3가지 분류의 접근방식을 갖는다(Wong, 1979: 1290).

(1) 위치도식(locational schemata)

통행로(pathway), 근린주구(동네), 활동의 결절점(activity nodes) 등을 요소로 하고 있는 위치도식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미지를 직접 지도화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심상도(Mental Map)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환경요소의 위치, 범위, 규모, 형태 등의 특징에 따라 사람들이 지역의 공간적 형태를 어떻게 인지하는가를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위치도식은 환경요소의 왜곡도, 거리지각, 방향감, 환경에의 명확성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인식의 범위가 다소 왜곡되고 한정되기는 하지만, 공간 행위자가 환경에 대해 공간적인 질서를 부여하고 자신의 위치도(locational map)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으로 Lynch(1960), Lee(1968), Franciscato와 Mebane(1973)의 연구들이 포함된다.

(2) 인지지도(cognitive map)

이런 특정 장소에 대하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이미지를 알고자 할때 사용하는 것으로 인지도를 공간환경에 대한 지식을 조직화하는 틀/framework)로 보고 위치적 지식(locational knowledge)과 속성에 대한 지식(attribute knowledge)으로 구분하여 상호보완적 관계가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즉 위치적 지식이 거리와 방향에 관한 것이라면, 속성에 대한 지식은 여러장소가 서로 어떻게 비교되는가에 대한 정보에 따라 장소나 지역의 속성을 평가하려는 것이다. —

(3) 인지선호도(cognitive affective map)

관찰자가 선호와 선택에 의하여 환경을 어떤 순서에 따라 인식하는가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이러한 연구가 갖는 세가지 일면은 첫째, 각 개인이 선택·결정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징 둘째, 이상적

인 환경에 대한 이미지 선택, 환경에 대한 현재의 인식과 이상적인 이미지와의 비교이다.

이상의 세가지 이미지도(圖)는 관찰자의 위치, 환경과의 질에 대한 서술, 선호도와 같은 관점에서의 분류이며, 이러한 관점은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연관되어 있고, 선호에 따라 왜곡된다. 즉 관찰자는 자신이 좋아하게 되면 그 요소의 부정적인 요소를 왜곡시킨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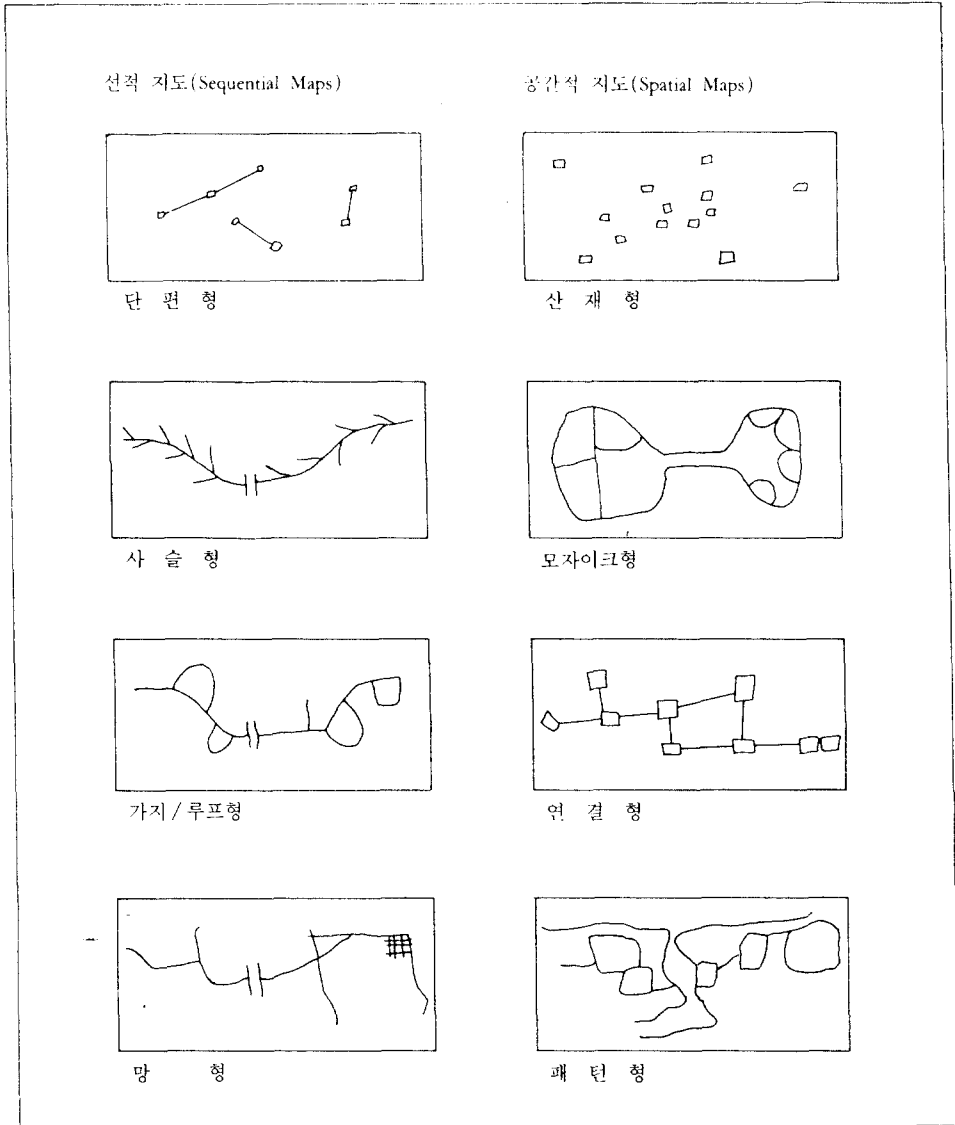
조사대상자들이 그리는 인지도는 그 형태나 세부적인 조사, 공간구성의 방법에 의해 여러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Appleyard(1970)의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그는 Ciudad Guayana에서 실시한 일련의 연구에서 거주민들의 인지도를, 그들이 구성하는 강조되어 사용된 요소와 그 복잡도에 따라 공간적 인지도(spatial cognitive maps)와 선적 인지도(sequential cognitive maps)로 구분하였다. 또한 각각의 유형은 그 정확도와 복잡도에 따라 4가지의 발달단계로 구분되는데, 초보적이고 위상적인 지도에서부터 각 요소가 위치와 방향, 그것에 의해 보다 체계적으로 구별되어지는 위치적인 형태로 발달되어 간다. <그림 2>

Ⅲ. 선행연구

1. 이미지 연구의 흐름

환경이미지에 관한 연구는 '이미지의 조작을 통하여 환경의 질을 고양시킬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올바른 사용방법이 계속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정적인(static) 조사로 부터 친밀감이나 세대의 변화, 환경의 변화와 함께 정신적 이미지가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가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통찰력을 환경이미지에 적용시키는 방법이라 볼 수 있다.

환경이미지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은 오늘날 까지 도 실행(action)보다는 조사에 더욱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인간이 환경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며, 한 장소에서 실제로 행동하는 방법을 알 수 있



〈그림 2〉 Appleyard의 인지도 유형*3

*3 • 선적유형 : 통로(path)와 연결점(node) 등의 이동로를 중심으로 한 도로체계가 주로 강조되는 유형.
 1) 단편형 : 단일 도로 또는 두개의 도로가 단편적으로 연결된 것. 2) 사슬형 : 주요 간선도로를 따라 횡단도로가 교차되어 있고 몇개의 주변 표적물이나 구역을 표시한 것. 3) 가지/루프형 : 주요 간선도로로부터 가지 및 환상형의 도로가 확장되어 있으며 몇개의 도로가 서로 연결된 것. 4) 망형 : 정확하고 복잡한 도로체계가 완성된 것.

• 공간적 유형 : 지표물(landmark), 구역(district), 그리고 가장자리(edge) 등의 공간적 구성요소가 강조된 유형, 5) 산재형 : 단순히 지표물 또는 구역을 분산표시한 것. 6) 모자이크형 : 여러 구역이나 지표물이 국지적으로 모자이크 된 것. 7) 연결형 : 여러 구역이나 지표물이 도로에 의하여 연결된 것. 8) 패턴형 : 도로와 함께 공간적 구성이 강조되어 요소들간의 상호연결이 완전하고 위치적으로도 상당히 적확함.

는 학문이다. 이미지 연구의 특수분야로 동물 행태 (behavior)의 기본개념은 영역감(idea of territory)에 관한 것들이 있으며, 또한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이웃의 범위에 대한 것과 공공장소에서 행동할 때 이루는 조그만 영역에 대한 연구조사도 있어왔다. 이것은 비교적 유추하기가 쉽고 사회적 상호관계 그리고 정치적 진행방법에 이르기까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환경 이미지의 요소이기 때문이다(Lynch, 조진구 역, 1984 : 159-160).

한편, 최근의 연구는 복잡한 지역에서 보다는 오히려 인지되는 이웃(neighborhood)에서의 고유한 형태를 중요시 한다. 환경이미지란 우리가 환경을 인식하고 행동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이미지이다.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상황설정(setting)이 식별되는 방법과 체계를 구성하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하여, 도표나 모형 그리고 실제조사 및 구두표현 방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연구에서 어려운 점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머리속에 전달하는 구조(structure)체계를 확실히 갖고 있다고 확신하는 방법에 있다. 환경이미지가 장소의 질에 미치는 이와같은 영향을 고려할 때, 환경이미지는 환경설계의 한 형태로 반영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사람들의 생활공간으로서의 장소는 어디서나 지각적인 질이 환경형태의 중요한 결과로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각각의 생활공간과 시간에 대해 품고있는 이미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장소의 감각을 이해하는 열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인지도에 관한 선행연구

1960년에 Lynch는 사람들의 인지도를 스케치지도(sketch-map)로 표출시켜서 이에 나타난 도시 이미지의 특성에 따라 연구하였다. 그는 이 연구에서 도시 경관의 명료성에 관한 5가지의 구분된 도시 이미지 구성 요소를 설명하였다. 이후, 세계 각 도시에서 이를 모델로 한 많은 연구가 실시되었다.

1962년에 Derk De Jong은 Lynch의 연구에 대한 폭 넓은 적용성 여부를 밝히기 위해 Amsterdam, Rotterdam, Hague와 Delft 등지에서 일련의 연구를 실시 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시가 규칙적인 패턴으

로 구성되어 있고 소수의 뚜렷한 이미지 요소가 존재할 때 인지도의 형성은 용이하고, 반면에 도시가 지나치게 규칙적이면서 강한 이미지의 구성요소가 결여되어 있을때, 이미지 형성은 오히려 혼동이 유발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Saarinen,1976 : 112). 또한 John Gulick(1963)은 Tripoli에서의 연구로 도시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시각적 단서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요소 역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Francescato와 Mebane은 Rome과 Millan 두 도시의 이미지를 나이별, 성별, 거주기간 및 거주민과 비거주민 등의 사회적 속성별로 구분된 계층간의 차이를 비교 연구하였으며(Downs & Stea, 1973 : 131-147), Saarinen(1973)은 미국과 캐나다, 핀란드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세계 이미지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학생들의 인지도에서 자신들의 나라를 주로 지도의 중심에 위치시키거나 그 크기를 과장해서 그리는 왜곡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Saarinen(1976 : 113-118)은 Chicago 상업중심지구(Loop)를 대상으로 여러 집단 이미지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상업중심지구 내에 거주하는 집단은 그 집단 내부지역에 대한 높은 이미지를 갖는 반면, 상업중심지구 외부에 거주하는 집단은 상업중심지구 외부지역을 보다 광범위하게 표현하였다. 따라서 사람들의 인지도는 거주지나 직장 등의 주로 활동하는 영역과 연관 되며, 이러한 특성은 거의 모든 대상자에게서 일반적으로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한편, 인지도를 통한 환경 이미지에 관한 국내 연구는 김현선(1983)의 서울 도심부에 대한 인지도의 유형과 복잡도에 관한 분석, 안순선(1983)의 사회계층별에 따른 인지도의 유형과 거주지역별 도심부 영역에 대한 조사연구, 권태호(1987)의 서울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심부의 이미지 연구 등이 있다.

3. 환경이미지의 구성요소에 관한 선행 연구

Lynch(1960)는 이탈리아의 플로렌스를 유일하게 식별성이 높은 정도를 반영한 도시로서 선택하였으며, 미국의 세 도시(Boston, Jersey City, Los Angeles)에 대한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식별성 있는 도시환

경, 즉 이미지 가능성의 구성요소로서 통로(paths), 가장자리(edges), 지표물(landmarks), 길절점(nodes), 그리고 구역(districts)를 지적하였다. Lynch(1960: 74)는 이상의 5가지 요소가 체계적으로 일관성있게 조직될 때 환경에 대한 식별성(legibility)이 높아지며, 이는 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 5가지 요소는 환경이미지 형성의 구성 요소로서 다른 물건과 구별되는 개성, 단일성의 독자성, 관찰자 사이의 또는 다른 물체와의 사이에서 공간의 관계, 패턴의 관계로서 구조(structure)를 포함하게 되며, 이는 대상에 대한 실제적이든 감정적이든 간에 무엇인가 의미(meaning)를 갖게 하는 특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Steinitz(1968)는 Lynch가 소홀히 하였던 의미성을 중시하여 물리적 형태와 그 형태가 지닌 행위적 의미를 중시하여 타입(type), 과밀(density), 영향의 일치성(significance)이라는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상호 관련성을 연구하였다. Saarinen(1969)은 Lynch의 연구방법을 따르면서 여기에 위치(location)의 정확성 등을 묻는 위치 이미지를 조사함으로써 Chicago의 이미지를 분석하였고, Southworth(1969)는 Boston City의 현장조사를 통해 인간은 주로 시지각(visual perception)에 의존하지만 소리 특성 또한 도시 이미지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정 장소에 활기를 높여주고 정보를 제공하며 장소감을 높여 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국내의 연구로는 이진영과 김용기(1984)의 서울도심부에 대한 랜드마크의 인지와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이진원(1984)의 6가지 주거지 유형별에 따른 표식물, 길찾기, 환경도식 등의 이미지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장근식(1984)의 가로 유형에 따른 주민 의식 비교에 관한 연구 등이 있어 왔다.

4. 이미지 고양인자에 관한 선행연구

환경이미지의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환경이미지를 고양하는 인자를 규명하려는 일련의 연구가 있어왔는데, 이는 사용자가 그들의 환경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에 관한 결과로서 물리적 요소(physical components) 가운데서 높은 이미

지의 가능성(imageability)을 가지는 요소를 찾아 내어, 환경 설계자에게 강력한 디자인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중요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도시 환경이미지의 고양인자에 관한 구체적 연구는 Appleyard(1969)와 Harrison과 Howard(1972)에 의해 시도되었다. Appleyard는 형태(form), 가시성(visibility), 상징성(significance)을 중요한 특징으로 보고 이를 세분하여 11가지의 인자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Harrison과 Howard는 환경인식의 인자를 크게 위치(location), 외관(appearance), 의미(meaning), 연상(association) 등에 관한 것으로 이를 26개의 인자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한편, Kaplan(1973)은 인간은 명료하면서도 일관성있는 환경을 선호하는 동시에, 또한 약간은 다양하고 신기함과 놀람이 있는 환경을 선호한다는 Rapoport와 Kantor(1967)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건축가나 계획가를 위해서는 복잡함과 질서간의 관계를 정립하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명료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규칙성과 단순성과 같은 인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De Jonge(1962)에 의해 지적되었다. 즉, 인간은 복합적인 환경을 보다 단순한 디자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Gestalt 심리학자들의 몇가지 결론으로 대별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설계의 독자성(uniqueness) 또한 중요한 이미지 구성인자가 됨을 강조하였다.

그밖의 이미지 고양인자로서 Wohlwill(1966)은 강도(intensity), 복잡(complexity), 경이(surprisingness) 등을 말한다. 그러나 지각상 지나친 자극이 들어올 경우 사람들의 인지도는 혼란된 상태로 나타나며, 환경의 스트레스로 변모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자극이 너무 없으면 단조로움을 유발시키고 그 자체가 일종의 스트레스가 되기도 한다. 디자인의 속성이 고도의 이미지 가능성을 결정하려는 목적 일지라도, 각 개인이 갖는 의미(meaning)의 역할은 중요하며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고양인자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김현선(1983)의 서울 도심부에 대한 가로와 건물 고양인자에 관한 것과, 이진영과 김용기(1984)의 랜드마크에 관한 고양인자, 그리고 이진원(1984)의 주택지에 있어 표식물의 인식이유에 관한 것 등이 있다.

IV. 연구 방법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우리나라의 집합주거는 1961년 마포 APT가 처음으로 단지화하여 건설되면서 부터이며, 1968년 용산구 동부 이촌동에 34동의 1313 가구분의 공무원 아파트는 근린주구방식이 도입된 최초의 주택단지의 시작이었다. 1970년대 이후, 서울을 위시한 여러 도시에서 학교와 시장, 어린이 놀이터 등 사회 편의시설을 갖춘 대규모의 집합주거단지들이 많이 건설되면서 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거환경 계획은 근린주구로서의 단지내 공간과 시설의 합리적 배치 등과 관련된 물리적 환경 그 자체에 대한 적합성과 합리성을 강조하면서 만족도와 선호도에 관한 연구에 거쳐왔다.

본 연구는 도시의 팽창과 함께 크게 확장되어 1980년대 후반에 부산에 대규모 주거 단지로 개발된 개금 주공아파트와 망미 주공아파트를 조사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 1960년 Lynch의 도시이미지에 관한 연구 이후 계속 되어온 이미지연구의 흐름을 바탕으로 주거공간으로서의 집합주거단지에 대한 주거자들의 환경인지유형과 심상이미지를 조사분석한다.

이직 물음을 통하여서는 이미지 구성요소와 고양인자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또한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1990년 7월 16일부터 8월 2일 사이에 실시되었으며, 463부를 배포하여 276명의 설문 유효자료와 241명의 인지도 유형자료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1) 인지도의 유형(type) 분석

인지도의 유형분석은 가장 일반적인 Appleyard의 8가지 유형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각 유형은 선적/공간적 유형으로 분류되어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X²검증을 하였다.

2) 이미지 구성요소의 분석

집합주거단지 거주자들의 주거공간으로서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그들의 이미지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집합주거단지의 어떤 물리적 요소들이 기억되고 선택되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는 Lynch가 미국의 세 도시에 대한 이미지 분석을 통하여 구성한 이미지 구성 요소인 지표물(landmarks), 구역(districts) 통로(paths), 결절점(nodes), 가장자리(edges) 중에서 근린주구로서 한정되는 집합주거단지에 대한 이미지 구성요소를 살펴보는 것이며, 또한 인구사회학적 변인과의 관계는 X₂검증으로 알아 보았다.

3) 이미지의 고양인자에 관한 분석

기존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독특성, 기능성, 근접/친근성, 쾌적/심미/유명성, 조경성의 5가지 유형으로 이미지의 고양인자를 작성하였다. 집합주거단지의 지배적인 이미지 구성요소로서 지적된 지표물과 구역을 중심으로 각각의 이미지 고양인자를 분석하고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를 역시 X²검증으로 알아 보았다.

〈표 1〉 조사 대상지역의 일반적 특성

	개금 주공아파트		망미 주공아파트	
	2단지	3단지	1차	2차
건축 년도(입주)	87-88 (6월)	88-89년 (7월)	85-86 (11월)	86-87 (4월)
총 수	15 층		15 층(철곡형)	
평 수	13평 - 31평		24평 - 33평	
동 수	18동 20동		23동	
전체 세대수	2544세대 2716세대		2038세대	
전체 평수	55718평 58234평		57618평	

연구의 방법은 기존의 문헌연구를 통한 이론적 고찰과 현지답사의 예비설문을 거쳐, 이미지 표현형태의 시각적 측면인 스케치 지도(sketch map)을 통하여 인지도 유형을 알아보고, 비시각적 측면에서의 언

〈표 2〉 최종 분석 대상

	배포	회 수	분석 사용	인지도 작성
개 금	242	153(63.2%)	134(87.6%)	121(90.2%)
망 미	221	160(72.4%)	142(88.8%)	120(84.5%)
전 체	463	313(67.6%)	276(88.2%)	241(87.3%)

2. 연구 대상

선정된 집합주거단지에서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조사된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표 3>과 같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구분	내용	개금		망미		전체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성별	남	61	45.5	65	45.8	126	45.7
	여	73	54.5	77	54.2	150	54.3
	전체	134	100	142	100	276	100
연령	20-30세	19	14.6	3	2.1	22	8.1
	31-40세	87	66.9	90	63.4	177	65.1
	41-50세	20	15.4	48	33.9	68	25.0
	51세이상	4	3.1	1	0.7	5	1.8
	전체	130	100	142	100	276	100
학력	중졸	13	10.2	1	0.7	14	4.9
	고졸	53	41.4	47	34.3	100	37.7
	대졸	62	48.5	89	65.0	151	57.0
	전체	128	100	137	100	265	100
직업**	직장의 장	3	2.3	2	1.4	5	1.8
	관리직	13	9.8	23	16.4	36	13.2
	전문직	12	9.0	13	9.3	25	9.2
	행정직	17	12.8	14	10.0	31	11.4
	기능직	11	8.3	2	1.4	13	4.8
	상업/서비스직	14	10.5	7	5.0	21	7.7
	개인사업	10	7.5	11	7.7	21	7.7
	기타/주부	53	39.8	68	48.6	121	44.3
전체	133	100	140	100	273	100	
월 소득	50만원이하	10	8.1	0	0	10	3.9
	51-70만원	20	16.1	8	6.1	28	10.9
	71-90만원	23	18.5	15	11.4	38	14.8
	91-110만원	34	27.4	62	47.0	96	37.5
	111-130만원	11	8.9	11	8.3	22	8.6
	131-150만원	8	6.5	20	15.2	28	10.9
	151만원이상	18	14.5	16	12.1	34	13.3
	전체	124	100	132	100	256	100
생활주기	가족형성기	10	7.9	0	0	10	3.8
	미취학기	32	25.2	8	6.0	40	15.3
	초중등교육기	77	60.6	115	85.8	192	73.6
	대학교육기	7	5.5	10	7.5	17	6.5
	회복기	1	0.8	1	0.7	2	0.8
	전체	127	100	134	100	261	100

가족 유형	핵가족	128	95.5	132	93.0	260	94.2
	대가족	6	4.5	10	7.0	16	5.8
전체	134	100	142	100	276	100	
거주 기간	1년미만	103	78.6	13	9.1	106	42.5
	2년미만	23	17.6	18	12.7	41	15.0
	3년미만	5	3.8	33	23.2	38	13.9
	4년미만	0	0	78	54.9	78	28.6
전체	131	100	142	100	273	100	
주택소유 형태	자가	103	76.9	122	85.9	225	81.5
	전세	31	13.1	20	14.1	51	18.5
전체	134	100	142	100	276	100	
주택 평수	20평이하	58	43.2	0	0	58	21.1
	21-25평	42	31.1	15	10.6	57	20.7
	26-30평	9	6.7	100	70.9	109	39.6
	31-35평	25	18.7	26	18.4	51	18.5
	전체	134	100	141	100	275	100
이사오기 전의 주택형태	단독	68	51.1	43	30.3	111	40.4
	연립	8	6.0	5	3.5	13	4.7
	아파트	57	42.9	94	66.2	151	54.9
전체	133	100	142	100	275	100	
희망하는 주택형태	단독	58	44.3	46	32.4	104	38.1
	연립	0	0	2	1.4	2	0.7
	아파트	73	55.7	94	66.2	167	61.2
전체	131	100	142	100	273	100	

V. 결과 및 해석

1. 집합주거단지의 인지도 유형 분석

인지도는 그 유형에 따라 구분될 수 있으며, Appleyard는 지도 유형에 따른 의미있는 분류를 시도하여 지도를 그 구성요소에 따라 선적 지도(Sequential Maps)와 공간적 지도(Spatial Maps)로 크

* 4 분 연구가 채택한 직업의 분류를 세분하여 보면, 1) 직장의 장(공공기관, 회사 등의 기관장 또는 중역급 이상), 2) 관리직(국장, 부장, 과장급 이상의 관리 책임자 등), 3) 전문직(교수, 의사, 법률가, 교육자, 예술가, 작가 등) 4) 행정직(일반 행정직, 회사원, 서기, 경리 등), 5) 기능직(운전, 인쇄, 기능공 등), 6) 상업서비스업(판매, 이·미용, 음식점, 유흥업 등), 7) 주부, 기타

계 분류하였다. 선적 유형은 도시의 이미지가 일련의 이동 경험으로 형성되는 것이며 통로 등의 선적 인 요소가 강조되는 반면, 공간적인 유형은 지표물, 구역 등의 공간적인 요소가 강조되어 나타나는 경우이다.

1) 인지도 유형 분류

전체 조사대상자의 인지도는 선적 유형이 50.2%, 공간적 유형이 49.8%로서 거의 대등하게 나타난다. 선적 지도에서는 가지/루프형(22.4%)이, 공간적 지도에서는 모자이크형(21.6%)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표 4〉 조사대상지역의 인지도 유형

	개 금		망 미		전 체	
	빈도	%	빈도	%	빈도	%
단 편 형	7	5.8	14	11.7	21	8.7
사 습 형	9	15.7	15	12.5	34	14.1
가지/루프형	22	18.2	32	26.7	54	22.4
망 형	10	8.3	2	1.7	12	5.0
선적 지도	48	47.9	63	52.9	121	50.2
산 재 형	6	5.0	6	5.0	21	8.7
모자이크형	36	29.8	16	13.3	52	21.6
연 결 형	13	10.7	27	22.5	40	16.6
패 틈 형	8	6.6	8	6.7	16	6.6
공간적 지도	63	52.1	57	47.1	120	49.8
전 체	121	100	120	100	24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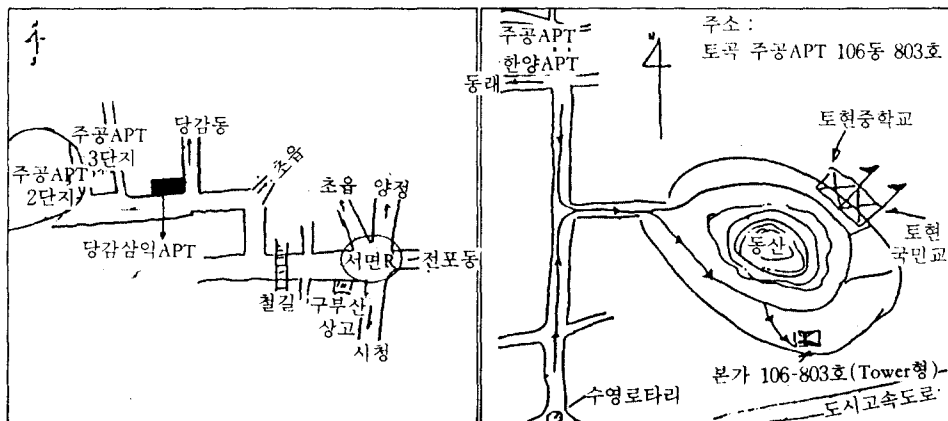
(1) 선적 지도

선적 유형의 가장 단순한 형태인 단편형(Fragmentary)은 주요 간선도로만을 그리거나, 또는 주요 간선도로의 교차부분과 근처의 지표물이 가끔 나타나는 경우로서 전체 대상자의 지도에서 8.7%를 나타내었다. 단편형 보다 다소 발달된 형태인 사슬형(Chain)은 14.1%로 나타났는데, 이 경우는 주요 간선도로가 표시되기는 하지만 다른 곳의 주요 간선도로와 만나지는 못하는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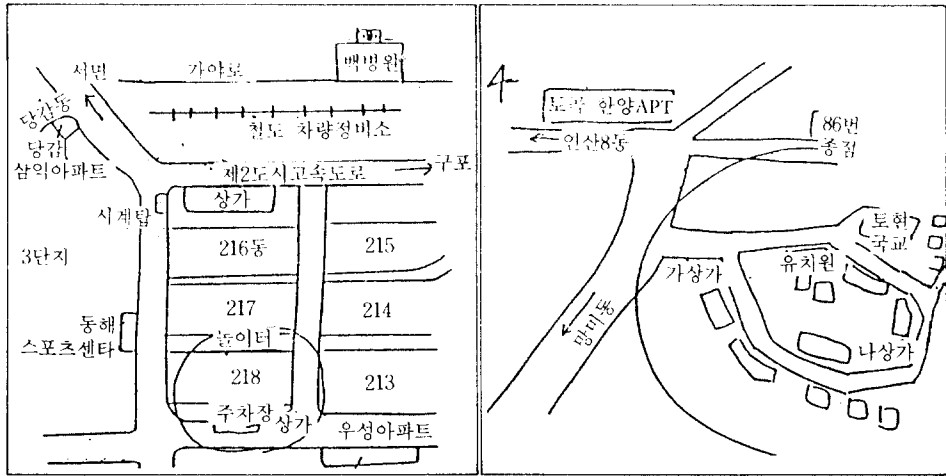
가지/루프형(Branch and Loop)은 주요 간선도로와 지선도로가 표시된 경우로서 전체의 22.4%를 차지하며, 선적 지도 전체에서는 44.3%의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마지막으로 선적 지도에서 가장 발달된 지도형태인 망형(Netted)은 5.0%의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거주자들이 작성한 인지도 중에서 대표적으로 가지/루프형의 지도를 제시하면 〈그림 3〉과 같다.

(2) 공간적 지도

공간적 지도에서 가장 단순한 산재형(Scattered)은 전체 대상자의 지도에서 5.0%의 낮은 비율을 나타내며, 어떠한 구역이 경계(edge)를 중심으로 모자이크화된 지도의 유형은 공간적 지도에서 43.5%, 전체 대상자의 지도에서 21.6%의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것은 거주자들이 집합주거단지로 한정되는 명확한 경계를 인식하고 자신들이 거주하는 동(棟)을 중



〈그림 3〉 가지/루프형 (개금/망미)



〈그림 4〉 패턴형 (개급/망미),

심으로 하여, 단순한 이미지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집합주거단지를 지표물이나 구역을 중심으로 기억하기 때문이다.

가장 일반적인 연결형(Linked)은 선적 요소와 공간적 요소가 혼재되어 나타나지만 공간적 요소가 강한 것이 특징이다. 본 조사에서는 전체 대상자의 16.6%가 이 유형의 지도를 그렸다. 또한 공간적 지도 중에서 가장 발달된 유형인 패턴화(Patterned)된 지도 유형은 전체 지도의 6.6%를 차지하며, 이 유형은 〈그림 4〉에서와 같이 선적인 요소를 통하여 주요 국면(features)이 거의 완전하게 연결되어 있는 매우 복잡하고 가장 발달된 유형이다.

2)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인지도 유형 분석
환경인지의 유형은 개인의 환경에 대한 인지능력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이것은 공간의 행위자가 환경을 이용하거나 또는 환경에 반응하는 과정 중에서의 외부환경에 대한 심리적인 질서(mental ordering)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환경의 인식과 그 결과적인 환경이미지는 여러가지 개인적 변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된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서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수입, 생활주기, 가족유형 등의 개인적 특성과 거주

기간, 주택소유형태, 주택평수, 이사오기전의 주택형태, 희망하는 주택형태 등의 그들 주거공간에 대한 외적 특성에 관한 변인을 사용하였다.

지도유형과 응답자 변인간의 관계에 대한 통계적인 유의성의 검증은 X^2 검증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인은 거주기간과 주택평수였다.

(1) 성별 지도 유형

본 연구의 조사결과 남자와 여자의 선적 지도(sequential maps)와 공간적 지도(spatial maps)의 유형은 거의 대등하게 나타나며, 따라서 성별에는 별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Appleyard(1970)는 Ciudad Guayna의 연구에서 남자들의 인지도는 주변환경의 더 포괄적인 이미지를 포함하는 것에 비해, 여자들의 인지도는 가정 지향적(home-based activities) 경향성이 강하고, 남자들에 비해 더 많은 실수를 한다고 하였다. 또한, Holahan and Holahan(1977, 1979)는 텍사스 대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환경 지향성 연구에서, 여자의 인지도는 남자의 인지도 보다 비교적 덜 객관적이며 개인적인 경향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한편, 인지도에 나타난 이러한 성(性) 차이는 전통적인 성역할 기능과 관련된 공간 형태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2) 거주기간에 따른 인지도의 유형

거주기간별 지도 유형은 <표 5>와 같으며, 1년 미만시 선적 지도(51.9%)는 공간적 지도(48.2%)보다 약간 높고, 2년 미만일때는 선적 지도(46.9%)보다 공간적 지도(53.1%)가 약간 높다. 또한 3년 미만일 경우 선적 지도(63.7%)는 공간적 지도(34.6%)보다 높으며, 4년 미만일 경우는 공간적 지도(55.5%)가 선적 지도(44.5%)보다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1년과 3년을 전후하여 선적 지도에서 공간적 지도로의 변화와 같은 환경인지의 발달 정도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선적 지도에서는 거주기간에 관계 없이 가지/루프형이 가장 지배적인 유형이며, 공간적 지도에서는 거주기간 2년을 전후하여 모자이크형에서 연결형의 더욱 발달된 지도유형으로 변화하여 간다. 이는 거주기간이 길고 지역어의 친밀성이 높을수록, 인지도는 정확하고 상세하며 더 확대된 지역어의 환경 이미지를 형성한다는 Saarinen(1964, 1967), Appleyard(1970), Gary Moor(1974), Holahan and Mirilia Dobrowolny(1978) 등의 일련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공간에서의 정확한 위치 특성과 상대적 위치를 지도화하기 위해서는 Appleyard(1970), Alexander Siegal과 Margaret Schadler(1977)는 6개월 이상,

<표 5> 거주기간에 따른 인지도의 유형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단 순 형	7 6.5	4 12.5	5 15.2	5 7.7	21 8.8
사 슬 형	17 15.7	3 9.4	5 15.2	9 13.8	34 14.3
가지/루프형	22 20.4	8 25.0	10 30.3	14 21.5	54 22.7
망 형	10 9.3	0 0	1 3.0	1 1.5	12 5.0
선적 지도	56 51.9	15 46.9	21 63.7	29 44.5	121 50.8
산 재 형	3 2.8	1 3.1	2 6.1	5 7.7	11 4.6
모자이크형	29 26.9	11 34.4	4 12.1	6 9.2	50 21.0
연 결 형	13 12.0	4 12.5	6 18.2	17 26.2	40 16.8
패 턴 형	7 6.5	1 3.1	0 0	8 12.3	16 6.7
공간적지도	52 48.2	17 53.1	12 34.6	36 55.5	117 49.2
전 체	108 100	32 100	33 100	65 100	238 100

$X^2=35.48617$ d.f.=21 Sig=.0250

Gary Evans(1981) 등은 1년 이상의 거주경험 이후 라야 가능하다고 하였다.

(3) 주택평수에 따른 인지도의 유형

주택평수에 따른 지도유형은 20평 이하나 21-25평에서는 선적 지도보다 공간적 지도가 더 높게 나타나며, 26-30평 그리고 31-35평의 지도에서는 선적 지도가 공간적 지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집합주거단지 거주자들에게 있어 그들 거주공간으로서의 주택 평수가 적을수록, 주택 외부 생활 공간으로서의 단지에 대한 관심과 이용율이 높아지고, 친숙감도 증가되어 발달된 지도유형을 형성하게 되기 때문이다.<표 6 참조>

<표 6> 주택평수에 따른 지도 유형

	20평이하	21-25평	26-30평	31-35평	전 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단 순 형	3 5.8	4 8.0	11 11.8	3 6.5	21 8.7
사 슬 형	7 13.5	11 22.0	14 15.1	2 4.3	34 14.1
가지/루프형	9 17.3	4 8.0	27 29.0	14 30.4	54 22.4
망 형	5 9.6	0 0	2 2.2	5 10.9	12 5.0
선적 지도	24 46.2	19 38.0	54 58.0	24 52.1	121 50.2
산 재 형	3 5.8	4 8.0	1 1.1	4 8.7	12 5.0
모자이크형	19 36.5	9 18.0	14 15.1	10 21.7	52 21.6
연 결 형	5 9.6	11 22.0	18 19.4	6 13.0	40 16.6
패 턴 형	1 1.9	7 14.0	6 6.5	2 4.3	16 6.6
공간적 지도	28 53.8	31 62.0	39 42.0	22 47.9	120 49.8
전 체	52 100	50 100	93 100	46 100	241 100

$X^2=47.04130$ d.f.=21 Sig=.0009

2. 이미지 구성 요소의 분석

Lynch 이후의 연구를 바탕으로 5가지 이미지 구성 요소에 대한 분석을 함에 있어, 본 연구는 언어적 물음을 통하여 응답자로 하여금 가장 인상깊게 기억되는 요소를 제시된 단지 배치도에 시각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기존의 연구가 가장 인상 깊은 장소를 포함하여 이미지의 구성 요소를 그들 스스로가 작성한 인지도

에 그러도록 한 것에 비하여, 본 연구는 스케치도가 갖는 개별 표현 능력의 차이와 한계를 보완하고 명확한 이미지의구성 요소를 밝히기 위하여,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집합주거단지의 배치도를 제시하고 그 위에 각 이미지의 구성 요소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조사결과 집합주거단지에서 가장 뚜렷한 이미지의 구성요소는 지표물과 구역이었으나, 응답자들은 둘의 정확한 구분없이 혼재하여 응답하고 있었다. 또한 가장자리는 거주하는 자신의 동(棟) 또는 집합주거단지 그 자체로 인식되어지고 있었으며, 결정점은 상가와 단지입구 등의 일부 특정 장소에서 명확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통로는 상가를 비롯한 거주하는 자신의 특정 동(棟)을 따라 형성되고 있었다.

개급 주공과 맘미 주공의 상이한 두 집합주거단지에서, 물리적 형태가 다름에 따라 거주자들의 관점은 어느 정도 상이하게 나타나게 되며, 동시에 개별의 중첩된 이미지 구성요소로서의 특징도 가질 것이다. 그러므로 공통(public)의 이미지의 구성요소에 대한 분석을 밝히므로써, 물리적 계획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우리는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집합주거단지에서 이미지 구성 요소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표물과 구역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며, 이때 그들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유사성에 따라 5개 영역(상가, 자연녹지공원, 학교, 부대시설, 주거동(棟))으로 분류하여 그들의 특징과 인구·사회학적 변인과의 관계를 X² 검증으로 분석한다.

1) 집합주거단지의 이미지 구성요소

집합주거단지 내에서 이미지 구성요소로 지적된 요소들을 <표 7>과 같이 유사성의 5개 영역으로 분

<표 7> 유사성에 의하여 분류된 이미지 구성요소:지표물(上), 구역(下)

	상가		자연녹지 공원		학교		부대시설		주거동 (棟)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개급	57	44.5	20	15.6	19	14.9	26	20.4	6	4.7	128	100
맘미	7	5.2	87	64.5	8	6.0	15	15.2	5	3.5	122	100
전체	64	25.6	107	42.8	27	10.8	41	16.4	11	4.4	250	100
개급	32	26.7	39	32.5	15	12.5	32	26.7	2	1.7	120	100
맘미	5	3.9	99	78.0	6	4.7	6	4.7	11	8.7	127	100
전체	37	15.0	138	55.9	21	8.5	38	15.4	13	5.2	247	100

류하여 보았을때, 지표물은 자연녹지공원(42.8%), 상가(25.6%), 단지내 부대 시설(16.4%)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구역은 자연녹지공원(55.9%), 단지내 부대시설(15.4%), 상가(15.0%)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자연녹지공원은 구역에 더 가까운 이미지 구성요소이며, 상가와 단지내 부대 시설은 지표물의 이미지 구성요소를 볼 수 있으므로, 한정된 단지내에서 지표물과 구역의 뚜렷한 구별없이 혼재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5

개급에서 지표물은 상가(44.5%)가 가장 높고, 부대시설(20.4%), 자연녹지공원(15.6%)의 순이며, 구역은 자연녹지공원(32.5%), 부대시설(26.7%), 상가(26.7%)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맘미에서 지표물은 자연녹지공원(64.4%), 부대시설(15.2%) 등의 순이며, 구역은 역시 자연녹지공원(78.0%)이 뚜렷하게 집중된 이미지의 구성요소로 나타났다.

D.T. Hevert(1976)는 물리적인 경계와 행태적인 경계에 주목하여 이러한 경계들이 심상도(mental map)에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는 범위이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인식적인 경계를 첨가하고 있다. 이러한 범위내의 거주자들은 사회·문화적으로 동질성을 가지면서 구성원간에 동일한 이미지를 공유하고 형성한

*5 주거생활을 구성하기 위한 지표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다음의 6가지 지표에 의존한다고 본다. 1) 규모 2) 경계 3) 개방공간(open space) 4) 공공건축용지 5) 근린상가 6) 가로체계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1) 지표물 : 근린상가(주공상가, 동해 스포츠센터, 가동상가, 나동상가), 유치원, 국민학교, 관리소, 노인정, 우체국, 자기동(棟), 2) 구역 : 개방공간으로서의 녹지공원, 놀이터, 휴게소, 정구장, 체육공원, 연못, 3) 가장자리 : 완충지대, 가로체계, 아파트경계, 4) 가로체계, 이동경로, 5) 결정점 : 가로체계를 따라 밀집되는 지점 등으로 이미지 구성요소를 분류하였다. 연구결과, 거주자들이 지적한 이미지 구성요소를 유사성에 의하여 분류하여 보았을때, 이들은 상가, 자연녹지공원, 학교, 부대시설, 주거동(棟)의 5가지로 나타났다. 즉 집합주거단지의 이미지 구성요소는 상가, 학교, 주거동(棟)의 지표물과 자연녹지, 부대시설의 구역을 중심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거주자들은 지표물과 구역을 실제 명확하게 구별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다. 따라서 본 연구의 동네 인식 역시 “인지된 근린주구”로서 우리 동네라는 물리적 환경에 대하여 거주자가 인지하고 표현하는 것이며, 그들의 행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범위를 말한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 집합거주단지 거주자들의 동네인식은 자기 동(棟) 자체에만 한정되는 경우가 53.9%로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아파트 자체까지를 인지하는 경우는 24.1%로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와 같이 고층 집합주택단지에서 형성되는 동네인식의 범주는 자연조건이나, 사회적 분류에 의한 불명확하고 확산적이던 것에서 아파트 자체를 또는 자기 동(棟)을 중심으로 하는 수렴적인 범주로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 같다. 이렇듯 주거지역에서 가장자리(edges)가 경계(boundary)로 인식되는 것은 인지자(認知者)가 가장자리로 둘러싸인 지구(地區) 안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이미지 구성요소

이미지 구성요소와 응답자 변인간의 관계에 관한 통계적 유의성을 X²검증으로 분석한 결과, 지표물과 구역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인은 연령, 거주 기간, 주택 평수이며, 그 외에 지표물은 성별, 생활 주기, 희망하는 주택유형에서, 그리고 구역은 수입, 생활 주기, 이사오기 전의 주택유형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1) 연령에 따른 이미지 구성요소

조사 결과, 20-30세의 연령일때는 지표물(52.4%)이나 구역(30.0%)으로 상가가 가장 뚜렷한 이미지의 구성요소로 나타나며, 31-40세, 41-50세의 연령에서는 자연녹지공원이 뚜렷한 지표물과 구역의 구성요소로 나타난다.

이는 35세 이하의 연령에서 새로운 환경적 특성의 경향성을 갖는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오래되고, 버려진, 심지어 파괴된 환경적 특성에 의하여 지배적인 경향성을 갖는다는 Porteous(1977)의 연구 결과나, 젊은 성인 연령의 경향성이 현대적인 특성과 통로에 의하여 지배적인 이미지를 형성한다는 Milgram(1976, 1977)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이렇듯 노령화는 이동의 형태와 양식의 차이에 의한 이미지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2) 거주기간에 따른 이미지 구성요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때, 지표물은 상가(43.8%)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지표물이 외부로 부터 눈에 띄기 쉽고 단일 물리적 요소가 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조건의 충족을 상가가 만족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주기간이 1년 이상으로 증가하면 자연녹지공원이 뚜렷한 이미지의 구성요소로 나타나며, 구역에 있어서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가장 지배적인 이미지의 구성요소로 자연녹지공원이 나타난다. 또한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다소 증가의 경향성을 보인다. 따라서 자연녹지공원은 지표물(40.9%), 구역(56.3%) 모두에서 가장 지배적인 이미지의 구성요소임을 알 수 있다.

〈표 8〉 거주기간에 따른 이미지 구성요소: 지표물(上), 구역(下)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4년미만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상가	49	43.8	8	21.1	5	13.9	2	2.7	64	24.7
자연녹지공원	19	17.0	18	47.4	20	55.6	49	67.1	106	40.9
학교	15	13.4	4	10.5	2	5.6	6	8.2	27	10.4
부대시설	20	17.9	6	15.8	6	16.7	6	8.2	38	14.7
주거동(棟)	9	8.0	2	5.3	3	8.3	10	13.7	24	9.3
전체	112	100	38	100	36	100	73	100	259	100
$X^2=70.32876$ d.f.=12 Sig=.0000										
상가	21	20.0	7	18.9	4	10.5	4	6.2	36	14.7
자연녹지공원	43	41.0	18	48.6	30	78.9	47	72.3	138	56.3
학교	14	13.3	2	5.4	1	2.6	4	6.2	21	8.6
부대시설	27	25.7	6	16.2	1	2.6	3	4.6	37	15.1
주거동(棟)	0	0	4	10.8	2	5.3	7	10.8	13	5.3
전체	105	100	37	100	38	100	65	100	245	100
$X^2=50.39474$ d.f.=12 Sig=.0000										

(3) 주택 평수에 따른 이미지 구성요소

주택평수에 따른 이미지의 구성요소는 20평 이하일때는 지표물로 상가(31.5%), 부대시설(27.8%)이 나타나며, 구역으로는 부대시설(34.0%), 자연녹지공원(26.4%)이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21평 이상으로 평수가 늘어남에 따라서는 자연녹지 공원이 지표물

과 구역 모두에서, 앞의 주거기간이나 연령 변인에
서와 마찬가지로 가장 뚜렷한 이미지 구성 요소로
나타난다.

〈표 9〉 주택 평수에 따른 이미지
구성요소: 지표물(上), 구역(下)

	20평이하		21-25평		26-30평		31-35평		전 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상가	17	31.5	16	29.1	13	12.5	18	37.5	64	24.5
자연녹지공원	8	14.8	14	25.5	61	58.7	23	50.0	107	41.0
학교	12	22.2	8	14.5	4	3.8	3	6.3	27	10.3
부대시설	15	27.8	9	16.4	14	13.5	2	4.2	40	15.3
주거동(棟)	2	3.7	8	14.5	12	11.5	1	2.1	23	8.8
전체	54	100	55	100	104	100	48	100	261	100
$X^2=62.04783$ d.f.=12 Sig=.0000										
상가	12	22.6	17	32.1	7	7.2	1	2.3	37	15.0
자연녹지공원	14	26.4	19	35.8	75	77.3	29	67.4	137	55.7
학교	7	13.2	3	5.7	6	6.2	5	11.6	21	8.5
부대시설	18	34.0	13	24.5	3	3.1	4	9.3	38	15.4
주거동(棟)	2	3.8	1	1.9	6	6.2	4	9.3	13	5.3
전체	53	100	53	100	97	100	43	100	246	100
$X^2=73.00273$ d.f.=12 Sig=.0000										

3. 집합주거단지의 이미지 고양인자에 관한 분석

건물에 대한 Appleyard(1969)의 이미지 고양인자
연구, Harrison과 Howard(1972)의 가로에 대한 이미
지 고양인자 연구,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한 김현선
(1983), 이진영과 김용기(1984), 이진원(1984), 권태
호(1987) 등의 국내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독
특성, 기능성, 근접/친근성, 쾌적/심미/유명성, 조
경성 등의 5가지 유형으로 이미지 고양인자를 작성
하였다.

1) 이미지 구성요소와 고양인자

집합주거단지에서 지표물과 구역으로 지적된 요소
들을 유사성의 5가지 항목(상가, 자연녹지공원, 학
교, 부대시설, 주거동(棟))으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
한 이미지의 고양인자를 분석하여 보았다. 이때 지
표물로서 지적된 상가에 대한 가장 높은 이미지 고
양인자는 기능성(45.3%)이며, 자연녹지공원은 조경

성(68.6%)에서, 그리고 학교는 근접/친근성(61.
5%)에 의하여 많이 기억되며 부대 시설은 근접/친
근성(35.0%)과 기능성(30.0%)에 의하여 많이 기억
된다. 특히 방미 주공에서 지적된 주거동(棟)의 테
라스 하우스(계단형 공동주택)는 독특성에 의하여
가장 많이 고양되어짐을 알 수 있다.

한편, 집합주거단지에서 구역으로 지적된 요소들
에 대한 이미지 고양인자는 지표물에서와 마찬가지
로 상가 역시 기능성(48.6%)에, 자연녹지공원은 조
경성(51.5%)에 의하여 가장 뚜렷하게 고양되며, 학
교는 근접/친근성(66.7%)에, 부대시설은 기능성
(26.3%)과 근접/친근성(26.3%)에 의하여 가장 크
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집합주거단지의 지표물(上)과 구역(下)에
대한 고양인자

	독특성		기능성		근접/ 친근성		심미/쾌적 /유명성		조경성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상가	7	10.9	29	45.3	24	37.5	3	4.7	1	1.6	64	100
자연녹지공원	11	10.5	3	2.9	6	5.7	13	12.4	72	68.6	105	100
학교	6	23.1	4	15.4	16	61.5	0	0	0	0	26	100
부대시설	9	22.5	12	30.0	14	35.0	3	7.5	2	5.0	40	100
주거동(棟)	8	33.3	2	8.3	7	29.2	7	29.2	0	0	24	100
전체	41	15.8	50	19.3	67	25.9	26	10.0	75	29.0	259	100
$X^2=194.63354$ d.f.=16 Sig=.0000												
상가	1	2.7	18	48.6	17	45.9	1	2.7	0	0	37	100
자연녹지공원	8	5.9	5	3.7	19	14.0	34	25.0	70	51.5	136	100
학교	0	0	3	14.3	14	66.7	3	14.3	1	4.8	21	100
부대시설	5	13.2	10	26.3	10	26.3	9	23.7	4	10.5	38	100
주거동(棟)	7	53.8	1	7.7	0	0	5	38.5	0	0	13	100
전체	21	8.6	37	15.1	60	24.5	52	21.2	75	30.6	245	100
$X^2=164.54407$ d.f.=16 Sig=.0000												

2)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이미지 고양인자 분 석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이미지 고양인자에 관
한 연구는 이미지 구성요소에 대한 각각의 이미지
고양 정도를 인구사회학적 변인과의 관계에서 살펴
보려는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집합주거단지의 뚜렷
한 구성요소인 지표물과 구역에 한하여 그들의 고양
인자와 인구·사회학적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앞에서 이미 구성된 5가지 고양인사를 가지고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고양인사에 대한 X²검증을 한 결과, 지표물과 구역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인은 월평균 수입, 거주 기간, 주택 평수였으며, 그외에는 구역 고양인사에서 생활주기와 희망하는 주택유형이었다.

(1) 월평균 수입에 따른 이미지 고양인사

조사 결과, 월평균 수입에 따른 지표물 이미지 고양인사는 수입별로 세분화하여 볼때, 51-70만원에서는 기능성(32.1%)과 근접/친근성(28.6%)이, 그리고 가장 많은 사례수가 있는 91-110만원에서는 조경성(36.5%)이 가장 지배적인 이미지의 고양인사로 나타난다. 또한 71-90만원의 월평균 수입에서는 쾌적/심미/유명성(7.9%)을 제외한 모든 고양인사가 고루 균등하게 나타나며, 111-130만원에서는 근접/친근성(52.6%)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구역에 있어서는 월평균 수입은 70만원 이하에서는 근접/친근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71-90만원과 91-110만원에서는 조경성이 가장 지배적인 이미

지의 고양인사로 나타난다. 또한 111-130만원에서는 기능성(40.0%)과 근접/친근성(35.5%)이, 그리고 131만원 이상에서는 조경성이 다시 지배적인 이미지의 고양인사로 나타난다.

(2) 거주기간에 따른 이미지 고양인사

거주기간에 따른 이미지 고양인사를 살펴보면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일때 근접/친근성이 지표물(37.4%)과 구역(36.3%) 고양인사로 지배적이며, 2년 미만일때는 지표물 고양인사로 기능성(31.7%)이, 구역 고양인사로 조경성(35.0%)이 지배적이다. 그러다가 2년 이상이 되면 조경성이 가장 지배적인 지표물과 구역의 고양인사로 나타난다. <표 11 참조>

(3) 주택 평수에 따른 이미지 고양인사

주택 평수에 따른 이미지 고양인사는 <표 12>에서와 같이 나타난다. 지표물의 고양인사는 전체적으로 조경성(28.4%), 근접/친근성(25.9%) 기능성(18.8%)의 순으로 나타나며, 구역의 고양인사는 역시 조경성이 29.9%로 지배적이고, 그 다음으로 근접/친근성(24.2%), 쾌적/심미/유명성(21.2%)의 순으로

<표 11> 거주기간에 따른 지표물(上)과 구역(下)의 고양인사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4년미만		전 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독 특 성	21	18.3	3	7.3	5	13.2	17	22.7	46	17.1
기 능 성	29	25.2	13	31.7	3	7.9	6	8.0	51	19.0
근접/친근성	43	37.4	8	19.5	9	23.7	8	10.7	68	25.3
쾌적/심미/유명성	6	5.2	6	14.6	5	13.2	11	14.7	27	10.0
조 경 성	16	13.9	11	26.8	16	42.1	33	44.0	76	28.3
전 체	115	100	41	100	38	100	75	100	269	100
$X^2=53.59736$ d.f.=12 Sig=.0000										
독 특 성	4	3.6	1	2.5	2	5.4	16	21.3	23	8.8
기 능 성	20	18.2	10	25.0	5	13.5	5	6.7	40	15.3
근접/친근성	40	36.4	8	20.0	3	8.1	13	17.3	64	24.5
쾌적/심미/유명성	21	19.1	7	17.5	12	32.4	15	20.0	55	21.0
조 경 성	25	22.7	14	35.0	15	40.5	26	34.7	80	30.5
전 체	110	100	40	100	37	100	75	100	262	100
$X^2=45.02695$ d.f.=12 Sig=.0000										

<표 12> 주택 평수에 따른 지표물(上)과 구역(下)의 고양인사

	20평이하		21-25평		26-30평		31-35평		전 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독 특 성	14	24.6	9	15.8	15	14.2	7	13.7	45	16.6
기 능 성	14	24.6	11	19.3	12	11.3	14	27.5	51	18.8
근접/친근성	20	35.1	22	38.6	20	18.9	8	15.7	70	25.9
쾌적/심미/유명성	5	8.8	3	5.3	17	16.0	3	5.9	28	10.4
조 경 성	4	7.0	12	21.1	42	39.6	19	37.3	77	28.4
전 체	57	100	5	100	106	100	51	100	271	100
$X^2=40.76537$ d.f.=12 Sig=.0001										
독 특 성	2	3.4	7	12.7	11	10.6	3	6.4	23	8.7
기 능 성	11	19.0	14	25.5	10	9.6	7	14.9	42	15.9
근접/친근성	20	34.5	16	29.1	16	15.4	12	25.5	64	24.2
쾌적/심미/유명성	11	19.0	10	18.2	24	23.1	11	23.4	56	21.2
조 경 성	14	24.1	8	14.5	43	41.3	19	29.8	79	29.9
전 체	58	100	55	100	104	100	47	100	264	100
$X^2=26.30436$ d.f.=12 Sig=.0097										

나타난다.

주택 평수별로 살펴보면, 이미지 고양인자는 주택 평수가 26·30평 또는 31·35평일때 지표물과 구역의 고양인자 모두 조정성에 의존하고, 평수가 25평 이하일때 근접 / 친근성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미지 구성요소와 고양인자와의 관계

본 연구는 이미지의 고양인자로 구성된 독특성, 기능성, 근접 / 친근성, 쾌적 / 심미 / 유명성, 조정성의 5가지 요소와 집합주거단지에서 이미지 구성요소가 되는 지표물, 구역, 통로, 결절점과의 관계를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13>에서 보는바와 같이 지표물(28.3%)과 구역(30.2%) 모두 조정성이 가장 지배적인 이미지의 고양인자로 나타나며, 통로(30.7%)와 결절점(62.4%)은 기능성에서 가장 고양된다. 이것은 앞의 인지도 유형분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표물과 구역이 인지도의 분류에서 공간적인 요소에 해당되고 통로와 결절점이 선적인 요소에 해당된다고 볼때, 집합주거단지에서 공간적 요소(지표물, 구역)의 고양인자는 조정성에 있고, 선적인 요소(통로, 결절점)의 고양인자는 기능성에 있다는 것을 추론 가능하게 하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미지 구성요소의 각각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표물은 조정성(28.3%)과 근접 / 친근감(25.8%)이 가장 지배적이고, 구역은 역시 조정성(30.2%)과 근접 / 친근성(24.2%), 쾌적 / 심미 / 유명성(21.1%)이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통로를 보면 지배적인 고양인자로 근접 / 친근성(24.2%)과 기능성(30.7%)이, 결절점에서는 기능성(62.4%)과 근접 / 친근성(33.2%)이 나타난다.

<표 13> 이미지 구성요소에 따른 이미지의 고양인자

	독특성	기능성	근접/친근성	심미/쾌적	조정성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지표물	46	16.9	51	18.8	70	25.8	28	10.3	77	28.3	267	100
구역	23	8.7	42	15.8	64	24.2	56	21.1	80	30.2	257	100
통로	5	1.9	81	30.7	91	34.5	53	20.1	34	12.9	264	100
결절점	5	2.0	156	62.4	83	33.2	2	0.8	4	1.6	248	100

V. 결론 및 제언

바람직한 주거형태의 설정을 위한 접근방법으로서 집합주거 단지의 물리적 형태와 이미지와의 관계를 조사분석한 본 연구는, 주거지로서의 집합주거단지에 대한 이미지 자체의 특성과 이미지 형성의 물리적 구성요소, 그리고 그 요소의 고양인자에 관한 것이었다.

이렇듯 집합주거단지에 대한 주거자들의 환경이미지에 관한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첫째, 집합주거단지에서 인지도 유형은 두 대상지역(개금 / 망미주공) 개별에서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때도 선적 지도(50.2%)와 공간적 지도(49.8%)가 별, 차이 없이 대등하게 나타난다. 세부적으로 보면 선적 지도에서는 가지 / 루프형이, 그리고 공간적 지도에서는 모자이크형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인지도의 유형이었다.

이는 Appleyard의 Ciudad Guayana에서의 연구결과인 선적 지도(77%)와 공간적 지도(23%)의 유형과 비교할때 상당한 차이를 보이나, 국내 연구로서 서울 도심부에 관한 연구 결과인 김현선(1983)의 선적 지도(55.5%)와 공간적 지도(44.5%), 권태호(1987)의 선적 지도(53.4%)와 공간적 지도(46.6%), 그리고 안순선의 선적 지도(50.4%)와 공간적 지도(49.6%)와는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처럼 선적지도와 공간적지도가 집합주거단지에서 거의 대등하게 나타나는 것은, 일차적인 생활공간으로서의 집합주거단지가 이미 가장 친숙한 장소로서 근린주구의 적정범위와 근린주구(communitiy) 시설화를 갖춘 대규모 단지로 형성되어, 인지영역으로서의 우리동네라는 범주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한편,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인지도의 유형은 성별, 연령 등의 변인과는 무관하고 거주기간과 주택평수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거주기간 1년과 3년을 전후하여 인지도는 선적 지도에서 공간적 지도로의 변화를 보이며, 주택평수는 25평 이하로 작을때 주택 외부생활 공간으로서의 단지에 대한 관심과 의존도가 증가하여 공간적 지도의 발달된 인지도 경향성을 보인다는 것이

다.

둘째, 집합주거단지에서 이미지의 지배적인 구성요소는 지표물과 구역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다소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는 집합주거단지가 주거 동(棟)을 중심으로 상가와 일부 편의시설의 단순한 물리적 환경요소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사성에 의한 분류로 집합주거단지의 이미지 구성요소를 5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을 때, 지표물은 자연녹지공원(42.8%), 상가(25.6%), 부대시설(15.4%)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구역은 자연녹지공원(55.9%)이 가장 뚜렷하고 그 다음으로 부대시설(15.4%), 상가(15.0%)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또한, 집합주거단지에서 동네인지 영역성의 범주인 가장자리는 자신의 동(棟)(53.9%)만을 중심으로 하는 것과, 아파트 그 자체(24.1%)를 인식하는 경우가 지배적인데, 이는 고층 집합주거단지에서 형성되는 동네 인지의 범주가 이미 자연조건이나 사회적 분류에 의한 불명확하고 확산적이던 것에서 수렴적인 범주로 변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인구 사회학적 변인과 이미지 구성요소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지표물과 구역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인은 연령, 거주기간, 그리고 주택 평수였다. 즉 20대이거나, 20평 이하의 거주자들에게 있어 지배적인 이미지의 구성요소는 상가와 부대시설이며, 30~40대의 연령과 26평~35평의 거주자들에게 있어 지배적인 이미지의 구성요소는 자연녹지공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자연녹지공원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가장 지배적인 이미지의 구성요소였다.

세째, 집합주거단지의 가장 뚜렷한 이미지 구성요소인 지표물과 구역에 대하여 5가지 유형의 이미지 고양인자를 알아본 결과, 지표물과 구역으로서 자연녹지공원은 조경성에, 상가는 기능성과 근접/친근성에 의하여 가장 많이 고양되었다. 또한 지표물과 구역으로서 부대시설과 학교는 근접/친근성에 가장 많이 고양되고, 주거 동(棟)은 땅미주공의 테라스하우스와 같이 주변의 자연조건을 살리고, 붉은 벽돌의 외벽처리, 계단식형의 모형과 같은 독특한 이미지를 형성에 하는 것에 의하여 고양되어짐을 알 수 있다.

한편, 인구 사회학적 변인과 이미지 구성요소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지표물과 구역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인은 월평균수입, 거주기간, 주택평수였다. 즉 월평균 수입이 71만원에서 110만원일 때, 거주기간이 2년 이상에서 4년 미만일 때, 그리고 주택평수가 26평에서 35평일 때 가장 지배적인 이미지의 고양인자로 조경성이 나타난다. 또한 이미지 구성요소 그 자체와 고양인자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공간적 요소인 지표물과 구역은 조경성에 의하여 가장 많이 고양되고, 선적인 요소인 통로는 근접/친근성에, 그리고 결절점은 기능성에 의하여 가장 많이 고양되어 짐을 알 수 있었다.

각자는 환경에 대한 개인적이며 독특한 심상도를 가지고 있다. 인지도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개인이 개별적 수준에 따라서 지리학적 환경을 보게 되고, 이해하고,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환경에 대한 개인의 인지도를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요구에 더욱 일치하는 환경을 설계하는가를 배울 수 있게 될 것이며, 이에 환경-인간-이미지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범주(동네, 지역사회, 도시, 국가 등)와 다방면의 분야에서 연구가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별 가족상황간의 비교수준을 제시할 수 있는 주거학의 독자적 영역의 연구가 미래에는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김현선, 認知地圖(Cognitive Map)를 이용한 서울시 도심부 이미지 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1983).
- 2) 권태호, 환경지각과 도시이미지에 관한 고찰,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1987).
- 3) 손세관, 도시주거지역에서의 장소형성의 특성에 관한 연구(I),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5권 3호(통권 23호), (1989. 6).
- 4) 손정목, 우리나라 團地社會形成의 沿革的 高찰, 주택, 46호, 대한주택공사(1985).
- 5) 안순선, 서울시 도심부의 공간이미지 특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논문(1987).

- 6) 이건영, 김용기, 서울 도심부의 랜드마크에 대한 인지와 상관변수에 관한 분석적 연구, 국토계획, 19권 2호(1984. 12).
- 7) 이규목, 환경지각과 장소성에 관하여, 건축, 24권 95호, 대한건축학회(1980).
- 8) 이영석, 주거환경계획(서울: 명보문화사, 1989).
- 9) 이진원, 서울의 住居地 形態類形에 따른 居住者의 "이미지"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1984).
- 10) 이재훈, 김현정, 건축과 철학관(서울: 大建社, 1989).
- 11) 이현호, 안순선, 서울시 도심부의 공간이미지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4권 2호(1988. 4).
- 12) 임승림, 환경心理·行態論(서울: 보성문화사, 1988).
- 13) 채서일, 김범중, SPSS/PC*을 이용한 통계분석(서울: 법문사 1990).
- 14) 頼尾文彰, 意味의 環境論(彰國社, 昭和 56).
- 15) Appleyard, D., Why buildings are know : a predictive tool for architects and planners, In Broadbent and et al.(eds.), Meaning and Behavior in the Built Enviornment(Chichester : John Wiley an Sons, 1980).
- 16) Appleyard, D. Styles and methods of structuring a city, J. Environment and Behavior, Vol 2, (1970).
- 17) Boulding, K.E., The Image, 구자성, 20세기의 인간과 사회(서울: 법호사, 1980).
- 18) Downs, R.M., and Stea, D., Cognitive Maps and Spatial Behavior : Process and Product, In Down, R.M., and Stea, D.(eds.), Image and Environment (Chicago : Aldine, 1973).
- 19) Downs, R.M., and Stea, D., Maps in minds : Reflections on cognitive mappings(New York : Harper & Row, 1977).
- 20) Harrison, J.D., and Howard, W.A., The Role of Meaning in the Urban Image, In Broadbent and et al.(eds.), Meaning and Behavior in the Built Enviornment(Chichester : John Wiley and Sons, 1980).
- 21) Hebert, D.T., Defining Communities within Urban Area, J. Town Planning Review, Vol 47 oct., 189 (1976).
- 22) Holahan, C.J., Environmental Psychology(New York : Randon House, 1982).
- 23) Ittelson, W.H.(ed.), Environment and cognition (New York : Seminar press, 1973).
- 24) Kaplan, S., cognitive maps in perception and thought, In Downs, R.M., and Stea, D.(eds.), Image and Environment : cognitive mapping and spatial behavior(Chicago : Aldine, 1973).
- 25) Lynch, K., Managing the Sense of a Region, 조진구, 황성수 역, 지역환경의 설계와 관리(서울 : 태림문화사, 1984).
- 26) Lynch, K., The Image of the City, 김의원, 황성수, 도시의 象(서울: 녹원출판사, 1984).
- 27) Porteous, J.D., Environment & Behavior : planning and every urban life, 송보영, 최현식, 환경과 행태(서울 : 명보문화사, 1989).
- 28) Saarimen, T.F., Student views of the world, In Downs, R.M. and Stea, D(eds.), Image and environment : Cognitive Mapping and spatial(Chicago : Aldine, 1973).
- 29) Saarimen, T.F., Environmental Planning:perception and behavior(Boston: Houghton Mifflin co., 1976).
- 30) Schulz, C.N., Existence, Space and Architecture, 김광현, 실존·공간·건축(서울 : 태림문화사, 1985).
- 31) Stea, D., Architecture in the Head, Lang, J., and et al.(eds.), Designing For Human Behavior (Stroundsburg, Penn. : Dowden, Hutchinson and Ross, 1977).
- 32) Wong, K.Y., Maps in Minds : An Empirical Study, J. Enviornment and Planning, Vol.11(1979).